5. 효도의 방법

父母를 섬기는 자는 작은 일이라도 감히 제 맘대로 하지 말고, 반드시 父母에게 여쭈어 보고 해야 한다. 만약 父母가 허락하지 않으면 자세히 말씀드려 허락한 뒤에 하며, 끝내 허락하지 않더라도 자기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父母가 계신 곳에 가서 문안을 여쭙고, 저녁이 되면 따뜻한지 서늘한지 여쭙고 이부자리를 정해드린다.

낮 동안 온화한 표정을 짓고 용모를 공손히 하며 정성을 다해 奉養(봉양)*하고, 멀리 집밖으로 나가고 돌아올 때에는 반드시 절하고 아뢰어야 한다.

父母와 자식 사이에 대부분 사랑이 恭敬(공경)*보다 지나치니, 그런 습관을 고쳐 자식은 尊敬(존경)을 극진히 하여야 한다. 父母가 앉고 누우시는 곳에서는 자식이 감히 앉고 눕지 않는다.

父母에게 병이 생기면 마음으로 근심하며 만사를 제쳐두고 의원에게 묻고 약을 짓는 일에 힘써야 하니, 병이 나으면 다시 평소의 일을 한다.

父母의 생각이 道理(도리)에 맞지 않으면 표정을 온화하게 하고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여 고치도록 말씀드리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반복해서 말씀드려 고치도록 해야 한다. (『격몽요결』「사친장」)

*奉養(봉양) : 받들어 모심
*恭敬(공경) : 조심해서 공손히 섬김

예쁘게 색을 칠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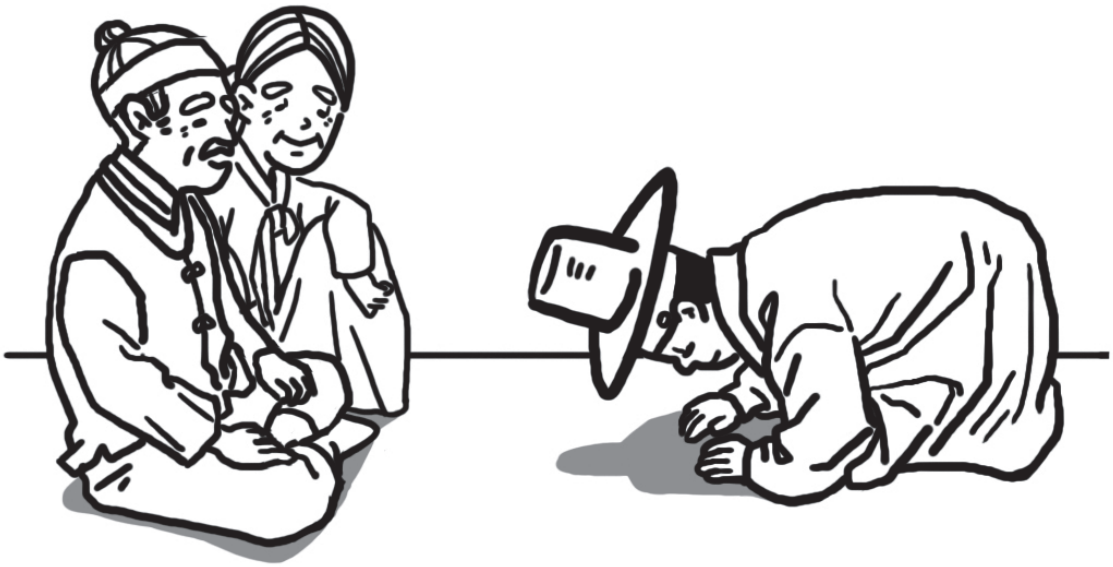
효자의 효도

이른 아침에

저녁에

예쁘게 색을 칠해 보세요.

멀리 떠나거나 돌아왔을 때



병이 들었을 때

본문 해설

앞의 본문은 옛날의 孝道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얼핏 보아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무리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네요. 사실 이 문제는 오해에서 비롯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는 孝道하는 사람의 나이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말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父母의 생각이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을 고치도록 말씀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또 父母님을 봉양(받들어 모심)하면서 이부자리를 돌봐드리는 것도 그런데, 이것은 훗날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의 나이와 형편에 맞는 孝道를 말해보려고 해요. 우선 제 맘대로 하지 말고 父母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해당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같은 미성년자들은 판단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돈이 들거나 위험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父母님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요.

또 아침과 저녁으로 父母님께 문안 올리는 것도 필요하구요. 더구나 외출하거나 돌아 왔을 때 인사하는 것을 빠뜨려서는 안 돼요. 비록 옛날처럼 큰 절을 할 필요는 없지만, 공손하게 인사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본문에는 말하지 않았지만, 형제끼리 싸우지 않고 잘 지낸다든가 위험한 곳에서 놀지 않는다든가, 집을 나가 어디를 갈 때 반드시 가는 장소를 알리는 것 등도 孝道하는 길이에요. 게다가 큰 병이 들었을 때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걱정하고 위로하는 일은 필요해요. 그러니 작은 감기 정도는 여러분이 집안일을 도와 父母님이 쉬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정도 나이, 가령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 정도의 나이가 되면서 父母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사춘기에 접어들어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는 되지만, 父母님께 퉁명스럽게 대하고 함부로 짜증부리며 말도 안하는 친구들이 더러 있어요. 이럴 때는 父母님께 공손하게 대하는 것만도 孝道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 볼 문제

1. 다음은 옛날의 효자가 하루 동안 부모님을 잘 모시는 방법을 적은 것이에요. 앞의 글을 참고로 빈 칸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세요.

이른 아침	낮	저녁
	잘 봉양한다.	

2. 부모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 여러분은 허락을 받기위해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 보시오. (　　)

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 드린다.

②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다.

③ 삐쳐서 말도 안한다.

④ 웃으며 부모님 비위를 맞춘다.

⑤ 기타(　　)

3. 오늘날도 "멀리 집밖으로 나가고 돌아올 때에는 반드시 절하고 아뢰어야 한다."는 것을 실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하는 인사말을 써 보세요.

가. 학교에 갈 때 :

나. 공부 끝나고 돌아 왔을 때 :

4. "부모가 앉고 누우시는 곳에서는 자식이 감히 앉고 눕지 않는다."고 했는데, 오늘날 부모님이 쓰시는 침대에 앉거나 눕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 그 이유를 골라 보세요. (　)

① 부모님이 마음속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② 부모님의 물건이 더러워지므로

③ 부모님을 높이고 공경하는 뜻에서

④ 어머니가 잔소리를 하기 때문에

한자·한문 익히기

1. 다음의 한자를 익혀 봅시다.

뜻	기를	공경할	일, 섬길	어버이	날	들
한자	養	敬	事	親	出	入
음	양	경	사	친	출	입

2. 한자어의 음과 뜻을 알아봅시다. (　) 속에 알맞은 음을 써 보세요.

가. 養親(　　) : 부모를 모시어 섬김. 양아들로 들어가 섬기는 부모

나. 事親(　　) : 어버이를 섬김

다. 出入(　　) : 나가고 들어 옴

3. 다음 □안에 해당하는 한자의 음을 쓰시오.

가. 큰 나라를 섬김 : 事大(□대)

나. 중요하고 큰 일 : 重大事(중대□)

다. 조심해서 공손히 섬김 : 恭敬(공□)

라. 가깝고 밀접함 : 親密(□밀)

4. 다음 □속에 한자의 음을 써 넣고, 큰 소리로 여러 번 읽어 보시오.

가. 父母衣服(□□□□)을 勿踰勿踐(물유물천)하라 : 부모님의 의복을 넘어 다니거나 밟지 말라.

나. 父母有疾(□□□질)이어시든 憂而謨瘳(우이모추)하라 : 부모에게 병환이 있으면 근심하고 낫게 할 것을 꾀하라.

다. 父母出入(□□□□)이어시든 每必起立(매필기립)하라 : 부모님께서 출입하시거든 그때마다 반드시 일어나라.

라. 父母使我(□□사□)어시든 勿逆勿怠(물역물태)하라 : 부모님께서 내게 시키시거든 거스르지 말고 게으르게 하지 말라.

孝子와 호랑이

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숯을 구워 팔아 홀어머니를 잘 모시는 孝子 총각이 살았대요.

하루는 총각이 숯을 팔러 장에 갔다가 너무 늦고 말았어. 깊은 산 고개를 넘어 집으로 오는데 그만 호랑이를 만났지 않겠어?

"호랑이야, 날 잡아 먹더라도 조금만 참았다가 잡아먹으렴. 집에 계시는 어머니께 이 고기와 옷을 갖다 드리고 하직 인사라도 하게 해줘."

그러나 호랑이는 등을 보이며 올라타라는 시늉을 했어. 호랑이 등에 올라타니 눈 깜짝 할 사이에 집에 도착했지.

"어머니 혹시 제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내일 아침 고개 너머 친척집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밥 굶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고깃국과 밥을 지어 드리고 하직 인사를 했어. 그리고는 도로 밖으로 나오니 글쎄 호랑이가 사라지고 없었어. 며칠이 지나 또 숯을 구워 장에 내다 팔고 저녁 늦게 돌아오는데, 고개 마루에서 그 호랑이를 또 만났어.

"며칠 전에는 날 봐 주었는데, 이제 날 잡아 먹으렴."

이렇게 말하자 이번에도 또 등을 돌리며 올라타라는 시늉을 했어. 올라탔더니 눈 깜짝 할 사이에 집에 데려다 주었지. 이렇게 해서 호랑이는 매번 총각을 태어다 주어 親하게 되었어.

그런데 어느 날 고개를 넘어오는데 호랑이는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호랑이가 사람들이 판 구덩이에 빠져 으르렁 거리고 있었어. 워낙 사나워서 사람들이 손도 못대로 쳐다만 보고 있었지. 총각이 이 호랑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사람들은

"며칠 동안 내버려 두면 굶어 죽을 터이니, 그 때 가서 잡지요."

그러자 총각은 그 동안 숯을 팔아서 모아 둔 돈을 주고 호랑이를 사서 구덩이에서 꺼내 주었어. 그 뒤로도 호랑이는 총각을 태우고 다녔는데, 어머니가 먹고 싶은 홍시나 산딸기나 밤이나 송이버섯이 있는 곳으로 태워다 주었어. 호랑이도 孝子노릇을 한 거지.

관련 인성 가치	효도